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온라인 공동체 상호작용과 성장과정 유형에 관한 연구

이 경 아⁺

(단국대학교)

김 성 천⁺⁺

(중앙대학교)

장 혜 립

(서울장신대학교)

이 은 정

(중앙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성장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포털사이트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공동체의 게시글 중 총 250개를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동질감을 갖고자 하는 인과적 조건에서 상호작용을 시작하였다. 게시자, 댓글자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중심현상은 각 게시자의 태도가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라는 맥락적 조건과 게시자와 댓글자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는가, 일방적이고 평가적 대화인가라는 중재적 조건에 따라 주고받음이 활발해지기도 하고 숨어버리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상호작용의 중심전략으로는 의지다짐, 구체정보, 공감과 지지라는 세 개의 범주에 7개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건강한 성장을 이룬 발달장애 부모들은 자기 수용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 철수를 하게 되는 부모들은 신세한탄을 하거나 숨어버리는 결과를 보인다. 부모성장 과정은 세 개의 상호작용 모형인 '의지다짐', '구체정보', '공감과 위로' 모형을 통하여 설명되었고 부모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경험자를 통한 신뢰와 격려 제공, 지속적인 상호작용 격려하기 그리고 비공식적 지원체계와 공식적 지원체계의 협력적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발달장애아동, 발달장애아동부모, 온라인 공동체, 상호작용, 부모성장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대부분의 부모는 출산과 양육의 경험 속에서 부모됨(parenting)이 자연스럽게 체득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적인 자녀양육은 행복과 고단함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부모역할의 연습이나 교육도 없이 치르게 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지원되는 지지와 자원에 따라 다른 경험과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양육경험은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녀의 성별이나 기질 등도 영향을 미치지만(신지연, 2011), 자녀의 장애여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서우경·김도경, 2013). 연구에 의하면,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에 대하여 우울과 불안, 분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적절한 관련 정보와 조언의 부재, 가족 내 갈등 및 주변 지인들과 부정적인 관계변화를 경험할 때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혜인·박지연, 2004; 정현주·김성수, 2013; Estes et al., 2013; Giallo et al., 2013). 또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 그리고 양육부담으로 인한 부부갈등이나 이혼 등도 보고되고 있다(양경애, 2010; 최재화, 2014; Kendall and Hatton, 2005).

현재 한국의 장애아동 가족지원은 공적기관을 통한 공식적 지원체계와 비공식 지원체계로 제공되고 있는데, 특히 비공식적 지원체계인 부모자조모임,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이웃과 친지를 통한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등에 의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강연희, 2002; 김성천 외, 2009; 이연희·황순영, 2013). 가족지원의 목적은 가족이 주체가 되어 장애자녀를 포함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 혹은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체계보다 비공식적 자원망을 활용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친구나 이웃의 지지, 교육적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인옥·이원령, 2011; Clifford, 2011).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신과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보와 자원, 정서적지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통한 위로와 지지를 받고자 한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적 지원체계 중 하나는 사이버 정보망을 통하여 구축된 온라인 공동체이다. 온라인 공동체는 가상 공동체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이재신, 2007; Shang et. al., 2006).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카페 등을 활용한 온라인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록 장애 유형은 다양할지라도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공통점이 있는 부모들이 온라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정보와 자원 등을 공유하면서 기능적 역할의 공동체(community)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공동체 특성은 대면적인 접촉이 아니며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상호작용에 있어 다른 특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의 고충과 욕구, 그리고 이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의미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장(場)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연구로 이용자 간의 연결정도, 포괄성, 밀도, 이용자 수, 상호작용 빈도나 범위, 상호작용 방향, 중요도 등의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조수선, 2007; 김병석, 2011; Steuer, 1993; McMillan and Hwang, 2002). 일부 연구는 온라인 공동체 이용자들이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 내용을 분석하여 게시자와 댓글자의 특성을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김병철, 2004; 김은미·이준웅, 2006; 권상희, 2007; 조국현, 2007; 조수선, 2007). 또한 인터넷 신문이나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에 나타난 댓글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욕구와 행동을 규명하고(김병철, 2004; 김재환, 2009; 김봉준·황의록, 2002; 이현선·리대용, 2004), 사회망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스포츠 커뮤니티에 나타난 상호작용 특성을 제시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이재신, 2007).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과정과 역동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영역에서 수행된 온라인 게시글을 분석한 연구는 아동학대 상담사례를 분석한 연구(이시연·박은미, 2004)와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게시글을 통해 ADHD 자녀를 둔 부모가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과 대처전략을 분석한 연구(이숙정·이경아, 2007) 등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온라인 공동체¹⁾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온라인 공동체는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이 익명적인 공동체를 통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얻는 '네티'와 정보와 비판이 가능한 '아고라(agora)'를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숙정·이경아, 2007; 김성천 외, 2012). 특히 발달장애아동 부모라는 특수한 욕구를 갖는 대상이 온라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부모로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며 이 경험은 부모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포착하고자 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비장애 자녀 혹은 다른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다른 욕구를 갖기에 이들이 온라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토로하는 내용과 의미, 상호작용 과정을 고찰하여 부모로서의 성장과정을 모형화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인터넷 동호회 활동에서 나누는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부모들이 처음 자녀의 장애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치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자녀에게 적용해 보며 자녀를 이해하게 되는 성장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Hoshmand(1989)에 따르면, 질적연구방법은 참여자들의 시각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아주 적절하며 자연주의적 방법은 연구자가 심도 있는 구조적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하다. 이 중 근거이론은 과정(상호작용)에 대한 추상적이고 분석적 구조인 이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하고자 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조흥식 외, 201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²⁾아동 부

1)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조사한 결과, 다음 카페 발달장애정보나눔터, 네이버 거북이 카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에이블뉴스, 아이소리, 행복한 자폐인, 어린이자 아동발달센터, 밀알재단 등으로 나타났다(김성천 외, 2012).

2) 발달장애아동의 범위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모들이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는 상호작용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이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경험한 성장과정 유형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특성

발달장애 아동은 장애의 특성 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는 다른 장애유형의 부모보다 더 큰 양육부담을 경험하게 된다(이지현, 2007; 최혜경, 2010; 한주경 외, 2011; 심석순 외, 2013).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78.4%와 자폐성장장애인의 97.6%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모로 나타나(지적장애 76.7%, 자폐성장장애 92.2%) 장애아동 양육에 있어 부모의 양육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외, 2011).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높은 부정적 정서, 우울, 스트레스와 더불어 낮은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박덕희, 2004; 고정선, 2006; 김성희 외, 2011; 조홍식 외, 2011). 일부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부모의 일부로 생각하여 장애의 원인을 부모의 잘못으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 양육부담 외에 부모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원균·오은경, 2014).

이에 다양한 상담이나 교육적 접근 외에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와 강화는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정서적 지지, 가족 응집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가 강할수록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경, 2002; 최지선 외, 2010). 비록 장애아동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제적·정신적인 에너지를 소요하고 있으나 가족과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 양육부담은 감소하고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공식적인 서비스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더불어 이웃과 친지, 다른 장애 부모들과의 자조모임 형태의 비공식적 지지 체계가 필요함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김인옥·이원령, 2011).

2) 온라인 공동체와 영유아 발달장애아동 부모

사회복지실천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조집단의 운영은 참여자들의 문제해결과 정서적 위안의 측면에

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 부모들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부모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예리·박지연, 2010; Clifford and Minnes, 2013). 최근 들어 스마트 기기의 보편적인 보급 등으로 인해 대중들은 SNS나 인터넷을 통한 활동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대면(對面) 관계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한 상호작용도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아동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자조집단에 참여한 자폐성장애 부모들은 집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집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Clifford and Minnes, 2013).

온라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성, 다양한 대화상대자, 공동의 공간,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 중에서도 상호작용성은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다. 상호작용성³⁾은 온라인 공동체에서 공통의 관심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텍스트로 구성된 글, 이메일, 사진, 동영상 등을 매개로 하여 지속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다(McMillan and Hwang, 2002; Rafaeli, 1998). 이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생각, 감정, 정보, 규범 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를 통해 구성원 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발달장애 부모들은 과도한 양육부담, 장애의 자녀를 인지한 후 실감하게 되는 정보와 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해 부모가 된 그 시점부터 다양한 심리·사회적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은 다른 장애아동 부모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욕구는 달라지기 때문에 발달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김성천 외, 2012).

특히 자녀의 발달단계가 영유아기인 경우 대부분 부모는 처음으로 자녀의 장애를 인지하게 되고 진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진단, 치료, 교육, 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이숙정·이경아, 2007; 김성천 외, 2012).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발달장애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진단을 경험하거나 혹은 경험하기 직전의 불안한 심리적 상황에서 온라인 공동체에 의지하게 되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거나 정서적 지지를 받기도 한다. 모든 부모가 태어나면서 부모가 아니듯이 발달장애아동 부모 역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 그리고 주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로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 부모가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는 상호작용 유형과 성장과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이용자들의 메시지 간의 연속적인 관계 즉 뒤의 메시지가 이전 메시지에 반응하는 정도(Rafaeli, 1998).

3.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온라인 공동체 내에서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의 상호작용과 성장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그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우선 선정하였다. 온라인 공간 선정의 근거는 김성천 외(2012)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결과와 발달장애 부모들로 가입된 회원 수가 최소 1,000명 이상이고 게시된 글의 범위가 1년 이상 되는 곳이라는 기준에 입각한 것이다.

선별된 온라인 공간 총 9개 중 최종 선택된 온라인 카페는 2001년에 오픈하여 현재까지 18,000명의 회원이 가입된 곳으로 2013년 포털 커뮤니티에서 우수카페로 선정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카페⁴⁾이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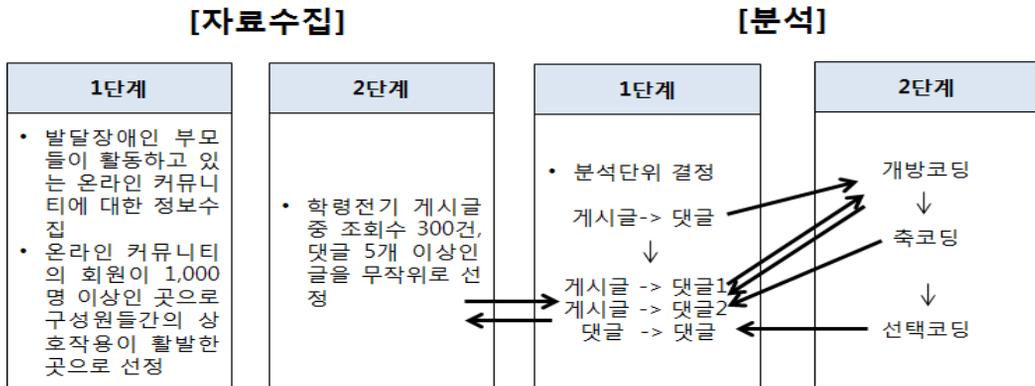
온라인 공동체를 통한 각 구성원들의 관계와 역동 즉,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에 나타난 게시글과 댓글⁵⁾을 분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분석방법이다(김병철, 2004; 김은미·이준웅, 2006; 권상희, 2007; 조국현, 2007; 조수선,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 즉 문자를 매개로 한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 담긴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자 중 일부는 선정된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그 다음은 카페 운영진의 동의를 받은 뒤, 나눔터 게시판의 게시글을 수집하기 위해 2012년 6월 10일부터 2013년 6월 10일 내의 게시글(1,536개)을 취합하였다. 선정된 공동체의 게시판은 나눔터, 정보제공, 사례모음 등의 하위섹터였고, 이 중 부모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가장 많은 게시글이 축적된 나눔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나눔터는 학령전기,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리고 성년기 나눔터로 연령이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학령전기 게시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게시판은 가장 많은 수의 게시글이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학령전기 나눔터 게시글 중 300회 이상 조회, 댓글이 5개 이상, 연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2개월 동안 누적된

4) 본 연구의 대상인 발달장애인카페는 2001년에 오픈하여 현재까지 18,000명의 회원이 가입된 카페로 2012년 포털 커뮤니티에서 우수카페로 랭킹 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해당 카페는 포털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카페 가입절차를 거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게시판에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등급상승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승급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정보 및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

5) '댓글' 혹은 '리플'이라고 불리는 '댓글'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내용에 대한 개인의견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일권·김영석, 2006; 조국현, 2007; 조수선, 2007).

글 총 250개를 분석자료(게시글+다수의 댓글들)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그림 1>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

분석은 근거이론 접근의 특성인 자료에 열중하고 분류하고 코딩하고 비교하는 것을 거듭 반복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수집된 자료로 개방코딩 하여 수집된 분석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게시글과 각각의 댓글의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 후에 동일개념을 묶어 추상화하여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7개의 하위 범주와 이를 추상화한 10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개방코딩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다시 검토하여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중복된 것이 있는지 재확인하였다. 개념과 범주는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가 나타나지 않는 포화가 될 때까지 정렬되고 비교하고 대조하였다.

개방코딩에서 하나의 게시글에 여러 성격의 댓글이 별도로 추가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되어 게시글 → 댓글의 형태로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2차적 수집단위는 형태에 따라 게시글 → 댓글1, 댓글1 ← 게시글, 게시글 → 댓글2 등의 형태로 재조정하였다. 재분석의 결과형태가 게시글 → 댓글1로 동일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내적 성찰의 수준과 상호간 역동의 수준에 따라 별도 유형으로 파악하여 재수집하였다. 개방코딩은 <표 1>과 같다.

<표 1> 개방코딩

내용	하위범주	범주	
처음이라 모든 것이 걱정됨/ 보이지 않는 깜깜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싶음/ 어려움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찾기	막막함	도움이 필요함	인과적 조건
선배 맘들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음/ 카페를 통해 우리 아이와 비슷한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과 다른 엄마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음 /	대처정보		
댓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됨/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엄마들과 만나고 싶음	동질감	동질감을 갖고자 함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솔직하게 상대방을 위로 하고 지지	자기 노출	개방적인	맥락적

내 용	하위범주	범주	
함 / 과거에 후회되었던 점과 깨달은 부분을 언급하면서 현 상황에 대해 조언	상대방 포용	태도	조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의사, 치료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 / 단순하게 인터넷 정보를 탐색할 것을 권유	자신을 숨김	패쇄적인 태도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 알아주는 사람들 / 같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	서로를 알기에 친해짐	존중과 친밀한 대화	중재조건
다른 부모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동받음 / 어렵고 곤란한 질문이지만 성심성의껏 답해줌	존경스러운 얘기들		
부모님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음 / 그냥 단지 말이 늦는 아이 같고 별로 심각한 것 같지 않음	비난과 소통 없는 의견	일방적이고 평가적인 대화	
게시자와 댓글자의 상호의견 교환	상호작용	상호작용 (숨어버림)	중심현상
발전된 아이의 미래를 위해 현재 아동의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짐 / 장애는 장기전이므로 엄마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도 필요함 / 뛰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접고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양육하고자 함	숨고르기	의지다짐	중심전략
아이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정신차리게 됨 / 아이를 믿지 못하고 채근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앞으로 아이를 기다려줄 것을 다짐 / 앞으로 노력해서 훌륭한 엄마가 되고자 함 /	다짐		
더디게 발전하는 아이의 작은 변화에 감사하며 거북이 아이를 통해 기쁨을 느낌 / 느낌보 거북이 아이의 변화로 인해 행복하고 엄마의 사랑을 느낌 / 몸도 마음도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낌	소소한 기쁨		
아이 문제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 / 일상 속에서 아이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시 / 카페를 통해 치료실에서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얻음	깨알정보	구체정보	결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이 편안해짐 / 많은 선배들 맘들의 글을 보면서 열심히 배워가고 있음	타산지석		
카페에서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고 있음 / 마음이 전해지는 댓글에 대한 감사	공감	공감과 지지	
카페를 통해 많은 분들과 많은 정보가 힘이 되고 있음 / 장애가 아니더라도 다른 육아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으니 부모님이 힘내기를 응원 / 부모님이 가장 큰 스승이니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기를 응원	우리 힘내요		
엄마가 장애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 아이한테 나쁜 엄마가 되는 것이므로 당당하려고 함 / 여전히 겁나지만 피해갈 수 없기에 앞으로 아이 치료에 꾸준히 노력할 것임 /	당당히 수용하기	건강한 성장	결과
부모중심의 양육방식에 대한 후회, 이젠 아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찾는데 중점을 둠 / 선배 맘들이 제시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임	해결방법을 찾음		
나 자신의 문제에 억눌려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함 / 신세한탄만이 지속될 뿐 실천하는 것은 없음	신세한탄	부정적 철수	

축코딩은 각 하위 범주들 간의 관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으로 범주 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분석하여 패러다임 모형의 구도가 이루어진다. 연구에서는 게시글과 댓글에 나타난 각 작성자의 의도와 내용이 상호작용 진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혹은 상호작용이 중지되고 게시자나 댓글자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범주를 재구성해보았다. 이를 통해 게시글과 댓글 간의 나타난 상호작용을 보다 역동적으로 나타내는 상호작용 모형을 도식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선택적 코딩은 축 코딩에서 나타난 범주와 패러다임 모델들을 통합하는 이야기 줄거리를 확인하고 “핵심 범주”(core category), 혹은 “조건적 명제”(proposition)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핵심범주는 중심현상, 혹은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문제(Glaser, 1998)를 해결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상황/결과모형(conditional/consequential Matrix)을 통해 그 전환체계(transitional system)의 상호작용, 혹은 그 상황경로(conditional path)를 설명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몇 개의 상호작용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 부모성장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고 완벽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소선, 2003). 분석 후 원자료에서 별도의 추가적 게시글과 댓글을 취합하고 재분석하여 분석의 결과가 추가 글에도 동일하게 부합되는지 반성한 후에 가장 적절하게 핵심범주를 설명할 수 있는 예문을 채택하여 예시글로 삼았다.

3)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Lincoln and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 자원의 다원화, 동료집단의 지지, 예외적 사례분석을 사용하였다(유태균, 2005).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은 질적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연구자와 대상자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진 중 1인은 분석대상 카페의 운영진이자 발달장애아동의 부모로써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체험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에 나타난 회원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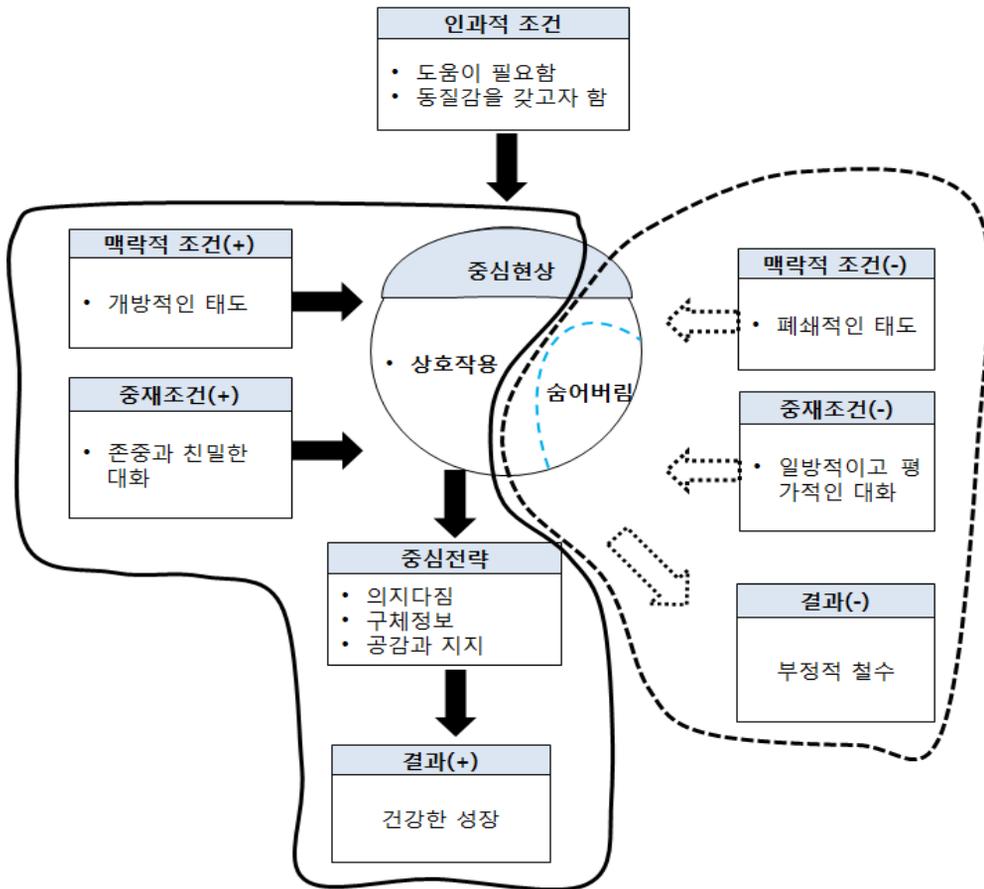
다음으로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원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과정에서 각 연구자가 동일한 자료를 별도로 코딩하고 서로의 코딩 일치도를 체크하였다. 또한 개방코딩을 시작으로 매트릭스 모형이 도출된 상황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공 관련 학과 전공자들과 함께 연구결과를 상호검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였다(Lincoln and Guba, 1985). 그리고 분석 시 상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결과와 비교해보는 작업을 통해 연구의 엄격성 수준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나타난 게시글과 댓글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작업으로 마무리하였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 활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우선, 게시판에 게재한 분들의 정보동의를 얻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카페 구성원들에게 자료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결과를 분석한 후, 카페 운영진과 공유하였고, 연구에 활용된 게시글의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익명으로 처리

함으로써 연구윤리를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결과

1)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상호작용 모형



<그림 2>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상호작용 모형

(1) 인과조건

인과조건이란 발달장애아동 부모가 온라인 공동체를 찾고 게시글을 올리는 이유이다. 게시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막막해하며 동일한 과정을 먼저 경험한 부모들에게 대처정보를 얻고 싶어 하였

다. 자녀의 장애인단 전에 중재가 필요하다는 조언으로 치료교육을 먼저 시작한 경우에도 치료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와 신뢰관계가 불완전하여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들과 지관계를 맺고 동질감을 갖고 싶어 하였다.

- 처음이라 모르는 거 투성이고 제가 잘 버텨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요즘 밤에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도 못자고... 비슷한 시기의 아이 키우는 엄마들 계시면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저런 조언 부탁드립니다(게시글 1*14*).
- 센터에 물어봐도 시원하게 절대로 대답해주지 않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 답변을 미루고 대답도 못하는 선생님들을 믿고 계속 나가야할지도 정말 의문이네요(게시글 1*26*)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이란 서로 다른 의견교환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말한다. 이는 초기 글 작성자의 게시글의 태도, 즉 어투와 글 내용이 어떠한가에 기인한다. 익명적인 온라인 공동체의 특성상 게시자의 맥락적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나 게시글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이후에 이어지는 댓글의 반응이 달라지므로 게시자의 태도가 맥락적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① 개방적인 태도

게시글 작성자의 질문이 부모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일을 꺼리지 않으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노출할 때 그가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댓글자는 댓글 작성에서 자기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하는 등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시 말해 게시자의 개방적 태도가 댓글자의 개방적 태도를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다.

- 손으로 허공을 가리키면서 소리 지르고 우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기가 깨서 울면서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것 같고... 무의식적 행동처럼 보여..맘이 참 더 아팠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낮 동안 그러지 않는 아이가 밤에 깨서 저리 뒤집다 자는지...(중략) 여러 가지들이 안스럽네요.. 나를 위해 토닥토닥~~(게시글 1*10*)
- 댓글1: 예구 힘드시겠네요...우리 아이도 2~3살 사이에 이유도 없이 새벽2~4 사이에 이유도 없이 한 시간 정도 울었어요...업어도 안 되고, 안아도, 달래도, 꼬집어도 안 되고.... 거의 매일 너무 심하게 울었어요. 어느 날은 불쌍하고 어떤 날은 정말 미웠어요...어느 순간 없어지면서 이게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윗분들 말씀처럼 병원의 도움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죽도록 길었던 것 같은데 다 지나가더라구요... 곧 지나갈거여.....힘내세요!!!

② 폐쇄적인 태도

이에 비해 게시글 작성자가 부모 개인이 자신이나 자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꺼리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피상적으로 질문하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 댓글자는 형식적인 위로나 정보에 치중하여 단답형의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즉, 맥락적 조건에서 게시자의 폐쇄적 태도는 댓글자의 폐쇄적 태도로 이어지기 쉽다고 할 수 있다.

- 문의 드립니다. 지금 ADHD로 판정받고 약을 복용한지 약 5개월이 되었는데요~~ 약을 먹고 지금까진 얌전하고 집중도 잘하고 산만하던 게 많이 잡혔는데요~~ 요즘 다시 산만해지는 거 같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중략)... 요즘은 학습 할 때 예전 그랬던 것처럼 손과 발을 만지고 자세도 흐트러지고 왜 그러는 걸까요? 다시 한번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약을 바꿔야 하는지? (게시글 1*22*)
- 댓글 1: 안녕하세요? 어머니.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약물은 장기 복용 시 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략)
- 댓글 2: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용량조절을 해보세요.

(3) 중재조건

중재조건은 상호작용으로서 행하여지는 상호간의 대화 방식을 말한다. 맥락적 조건이 각 게시자나 댓글자의 개인적 태도나 글쓰기 특성에 기인한 반면 중재조건은 상대방의 글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 이후의 댓글에 계속적인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대화의 형태로는 상대방이 직접 자신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존중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경우와 일방적이고 평가적인 관점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로 나뉜다. 중재조건은 맥락적 조건과 함께 대화가 더 풍성하게 이어져 나갈 것인지 혹은 중단될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

① 존중과 친밀한 대화

부모들은 서로의 형편을 알고 다른 부모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품을 때 쉽게 마음을 열고 서로 친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 00님의 따뜻한 댓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더 이상 울지 말고 빨리 평정심을 찾고 싶는데 쉽지 않네요. 뭘 어찌해야할지 몰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모두 모두 힘내세요 ! 자폐는 경하고 중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자폐증이 있고 없고 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상황이 더 안 좋은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까 조심스럽게 이해 구합니다. 댓글 모두모두 감사합니다(게시자의 댓글1*86*)

② 일방적이고 평가적인 대화

이에 비하여 부모의 과도한 욕심이라거나 그냥 단지 말만 늦는 아이 같다고 말하는 등 비난과 소통 없는 일방적 평가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댓글이 달리지 않거나 서로 비방하는 글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았다.

- 감각통합치료 좋은 치료방법의 하나지만, 부모님의 욕심인 것 같군요. 주 2회의 치료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중략).... 대부분의 부모는 일주일에 3-4개의 언어치료실, 미술치료실, 음악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등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부모님의 욕심(나는 너에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 아이의 치료효과보다는 치료실은 많은 돈을 벌겠지요)이라고 봅니다(댓글자 2의 댓글 1*28*).

(4)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온라인 공동체의 게시글과 댓글에 나타나는 상호의견 교환을 의미한다. 또한 드러나지 않지만 상호작용을 중지하는 숨어버림도 주고받음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중심현상으로 볼 수 있다.

(5) 중심전략

중심전략은 중심현상이 활성화될 때 사용되는 전략을 말한다. 서로 주고받음에서 사용하는 중심전략은 크게 자기 내면을 향하는 의지다짐과 구체정보, 그리고 공감과 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중심현상인 숨어버림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온라인 동호회에 글을 올리지 않거나 완전히 탈퇴해 버리는 것이어서 전략으로써 드러나지는 않으나 실재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의지다짐

의지다짐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인식관심을 자신에게 두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가. 숨 고르기

- 저는 제 아들이 중요하지만 저는 자기 자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이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언젠가는 지쳐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세요. 길게 봐서는 그렇게 해야지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댓글 1*31*)

나. 다짐

- 뭘 하나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관심과 애정 퍼부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어제는 혼자서 생소하듯 했는데 조금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관심 가져주니 장난도 치려하고 기다려~ 하니 들려 보채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차분하게 혼자 놀며 기다리고... 선배님들 조언이 치료선생님들의 조언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댓글 1*37*).

다. 소소한 기쁨

- 처음 보는 음식은 공포에 찬 눈빛으로 거부하던 녀석이 요즘은 달래면 마지못해 한입은 먹어보고 영화관가서 몸을 배배 꼬거나 줄긴 해도 나가지는 말은 안하는 거 보면... 그래도 나를 발전하구 있구나. 가끔은 은근히 기대하고 걱정하는 엄마 맘 이상으로 잘해줄 때는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댓글 1*11*).

② 구체정보

구체정보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일상생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정보를 서로 제시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과정이다.

가. 깨알정보

- 만약에 저라면... 언어치료 2회하고 미술치료는 5세인 지금은 하지 않을꺼구요.. 그리기 쓰기 봉지 뜯기가..안된다고 하니까 작업치료 2회 들어갈꺼예요.
- 미술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해주는 거라면 ,과감히 접고 대근육과 소근육이 되면 특수체육(다지기나, 짐스)을 시켜보겠어요. 아님..아이가 인지가 되면.. 일반 소그룹 진행하는 수영 같은거요 (댓글 1*33*).

나. 타산지석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방법을 좀 알 것 같아요. 자신감이란 부분서 많이 반성하고 가네요. 요새 아이가 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팠거든요. 소중한 댓글 감사드려요(댓글 1*77*).

③ 공감과 지지

공감과 지지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위로를 받고 상대방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 공감

- 그 마음 저와 같은 마음입니다. 살아보니... 불발상황이 많이 생기네요. 꺾지는 것도 아닌데 위축된 제 모습이 참 싫었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댓글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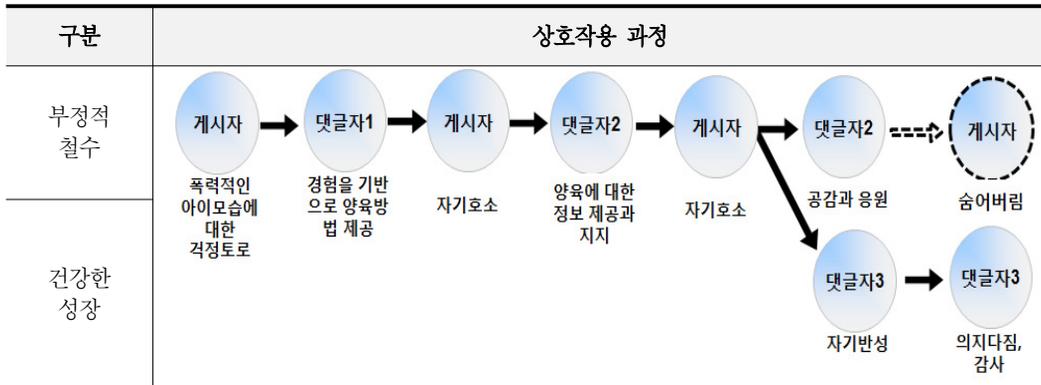
나. 지지와 응원

- 처음의 저 같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 아이도 한결음씩 나아진답니다. 힘내세요.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날 꼬옥 울꺼예요. 제가 그렇거든요(댓글 1*32*).

(6) 결과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떤 게시자나 댓글자는 자기수용과 강한 유대감을 보이는 건강한 성장이 가능한 반면, 어떤 경우는 신세한탄에 그치는 부정적 철수를 보였다. 이에 대한 과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표 2>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상호작용 과정



① 건강한 성장

자기를 수용하고 타인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된 부모들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수용적 생각을 가지며 장기적인 호흡으로 치료교육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들은 지역사회 혹은 국가 행정적 도움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안내하고 지지해준 인터넷 공동체의 동료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보낸다.

- 댓글 보고 다시 마음잡아서 자포자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치료 열심히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장애등록하려고 예약 잡고 왔습니다. 어차피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 장애등록 후 도움 받을 건 받으면서 하려구요.(댓글 1*62*).

② 부정적 철수

부정적 철수를 보이는 부모들은 “평범한 날이 올까” 혹은 “정말 좋아질까요?”라는 질문을 반복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상대방의 위로나 도움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결국 상호작용을 멈추는 반응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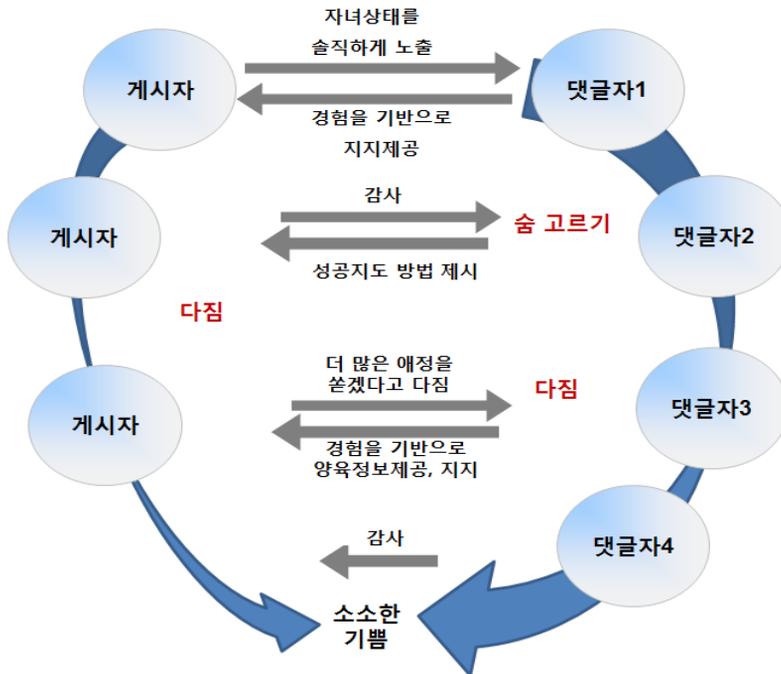
- 전 그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애 키우고 사는 게 낫았는데... 그런 날이 올까요? 너무 힘드네요(ㅠㅠ).. 넘 늦지 않았나요? (중략) 정상아처럼 되는 건 단지 말만 늦을 때인가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나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요.(댓글 1*52*)

2)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성장과정 모형

이상에서 밝혀진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성장과정을 모형을 통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지다짐'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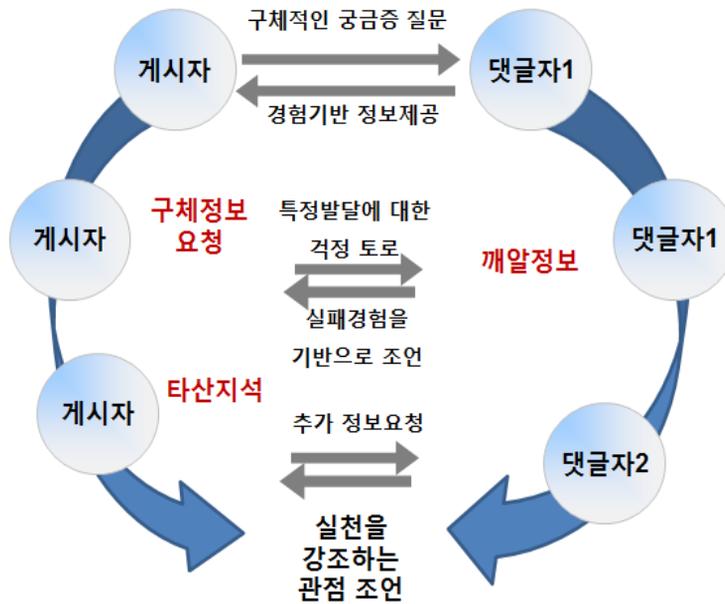
게시자는 자신의 자녀를 솔직하게 노출하고 답답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댓글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응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게시자는 댓글자에게 감사를 표현하였고, 앞으로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겠다고 다짐함으로써 다른 부모들도 각자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성장경험을 하게 된다.



<그림 3> '의지다짐' 모형

(2) '구체적인 정보와 실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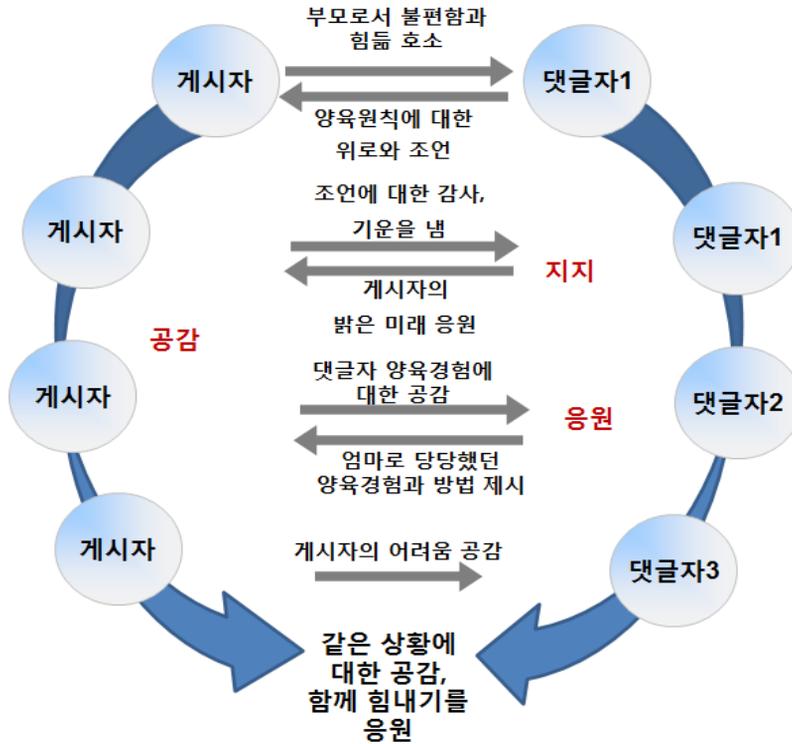
게시자는 자녀양육에 있어 구체적인 질문이 생기게 되면 이를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댓글자들은 자신의 양육경험에 근거하여 친절하게 응대하며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각 댓글자들의 조언에 대해 게시자는 일일이 응답하였고 추가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그림 4> '구체적인 정보와 실천' 모형

(3) '공감과 위로'모형

게시자는 부모 자신의 불편하고 힘든 개인적 상황을 가감 없이 보임으로써 고민을 호소하고 공감을 청한다. 이에 다른 부모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노출하면서 조언과 응원 그리고 위로를 제공하였다. 대화를 통해 모든 부모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나누게 되었고 동질감, 같은 상황에 대한 공감은 온라인 공동체 내 활발한 상호작용의 원천이 되고 있었다.



<그림 5> '공감과 위로' 모형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이 온라인 공동체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이를 통한 성장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였다.

온라인 공동체는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지속될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집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상호교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개인 대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지현, 2003; 성동규, 2006). 이에 2000년대 이후부터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공간의 제약 받지 않고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 모임을 찾아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온라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은 영유아 발달장애아녀를 둔 부모들이 다양한 게시판을 통해 장애인단, 치료,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요청하고 답변이 주어짐으로써 다양한 정보와 정서적지지 그리고 부모의 역량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우선, 온라인 공동체 내 영유아 발달장애아동 부모는 막연함과 막막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
고 여러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먼저 경험한 부모들에게 대처정보를
얻거나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들과 지지관계를 맺고 '동질감을 갖고자'하였다. 부모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의사교환 형태가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어투와 글 내용이 맥
락적 조건이 되었다. 즉 글 게시자의 개방적 태도가 댓글자의 개방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반면 게시자
의 폐쇄적 태도는 댓글자의 폐쇄적 태도로 이어지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조건은 상호작용으로
행해지는 상호간 대화방식으로 부모들이 서로의 형편을 알고 노력과 헌신에 대해 존중해줄 때 서로
친해지는 '존중과 친밀한 대화'가 나타났으나 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글에 나타날 경우 댓글이 달리지
않거나 일방적이고 평가적인 대화 방식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맥락적 조건과 함께 대화가 풍성
하게 유지될지 중단될 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는 부모들에게 자기수용과
강한 유대감을 보이는 '건강한 성장'의 과정을 이끌거나 신세한탄에 그치는 '부정적 철수'를 보이게 하
였다. 이에 부모의 성장과정 모형은 자녀의 상태를 솔직하게 노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응원하는 댓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사와 양육 노하우를 얻게 되는 '의지다짐'모형과 자녀양육에
있어 궁급증이 생길 때 구체적으로 질문함으로써 댓글자의 조언을 듣고 또 이에 대해 추가질문으로
응대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정보와 실천'모형, 그리고 부모로서 불편함과 힘들음
가감 없이 보이고 고민을 호소하고 공감을 청함으로써 응원과 위로를 얻는 '공감과 위로'모형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은 단지 일방적인
질문-대답이 아니라 게시글의 내용과 게시자의 태도를 통해 답글자는 영향을 받고, 답글자의 내용과
태도를 통해 게시자는 영향을 받는 쌍방향적인 과정이었다. 이때 게시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정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활발한 의사소통이 지속되지만 폐쇄적인 태도의 게시글에는 댓글의
빈도가 낮아지거나 평가적인 댓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밀함
을 느끼게 하는 게시글과 댓글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서로에게 필
요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공동체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메시지 유형을 분석한 조수선(2007)의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조수선(2007)은 온라인 공동체라는 가상공간에서는 이용자 간의
메시지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게시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담긴
게시글이 가장 수준 높은 글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가 교환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 간에 다양한 형태로 맺어지는 상호작용은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
를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연희와 황순영(2013)의 연구에 의하면 동질적인 어려움을 지닌 부
모들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자녀의 양육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지지
적인 자원이 되고 있다. 장애자녀의 장애가 진단되기 이전이거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진단명을 확인
받게 되는 영유아기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오는 양육부담과 스트레스 외에 또 다른 부가
적인 위험요인에 직면하게 된다. 장애영유아 가족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

를 확립하여 가족의 대처전략 향상에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배경희 외, 2008). 따라서 이경면(2004)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장애아동 부모들의 의사소통을 촉진 시키고 관계망을 확대시켜 장애아동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와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발달장애아동 부모에게 온라인 공동체와 같은 비공식적 지지체계는 단순한 정보제공의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와 지지체계에 관한 욕구는 높지만 시간적 제약이 많은 발달장애아동의 부모이기에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주는 접근의 용이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온라인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아동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비공식적 지원체계와 함께 공식적 지원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비공식적 지원체계에 의해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제공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는 공식적 지원체계가 협력적으로 함께 지원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발효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도에 관련된 공식적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손쉽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원령(2010)은 장애아동 부모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느끼고 있으며 장애특성과 관련된 법,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에는 아동과 가족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 자조집단 활성화와 더불어 이들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을 수립하고 안내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같은 사회정책적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 확립이 요구된다.

셋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공동체 구성원들 중 일부는 여러 사람들과 좋은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었다. 반면 부정적 철수를 보이는 부모들은 이후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은 자조집단 내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집단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차후에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거나 최소한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할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익명적인 상담서비스, 혹은 직접적인 찾아가는 서비스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정선, 2006,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감,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정신지체와 자폐 아동 어머니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1): 1-17.
- 권상희, 2007, “인터넷 미디어의 상호작용성 차원 연구: 미디어양식별 이용자의 인식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2): 46-97.
- 강성경, 2002,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 지원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7-35.
- 강연희, 2002, “청각장애 영유아 어머니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석, 2011, “온라인 댓글 토론 구조의 사회 네트워크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병철, 2004, “인터넷 신문 댓글이 상호작용성 특성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4(2): 147-180.
- 김봉준·황의록, 2007, “온라인에서의 제품 평가정보가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품 리뷰기사와 소비자 댓글의 구전효과”,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1-27.
- 김성천·권오형·최복천·심석순·신현옥, 2009, 『가족중심 장애아동 통합지원방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성천·권오형·신철민, 201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정보이용 실태 및 활성화방안 연구-자폐성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성희·변용찬·손창균·이연희·이민경·이송희·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 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소선, 2003, “근거이론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탐구』, 12(1): 69-81.
- 김예리·박지연, 2010, “장애아동 부모들의 품앗이 부모자조활동이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역량강화 및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4(4): 445-465.
- 김은미·이준웅, 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50(4): 65-94.
- 김인옥·이원령, 2011,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7(1): 101-121.
- 김지현, 2003, “부모 동호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부모 관심사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환, 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의 이용과 상호작용성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1): 5-44.
- 박덕희, 2004, “자녀의 장애정도에 따른 정신지체가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경희·정영숙, 2008, “발달장애아동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부담 및 대처행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7(4): 115-137.
- 서우경·김도연, 2013,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일반 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121-136.
- 성동규, 2006,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파주: 세계사.
- 신지연, 2011, “유아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5(2): 291-312.

- 심석순·권오형·장혜림, 2013, 『성인발달장애인 자녀의 미래설계 실태와 욕구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양경애, 2010, “ADHD 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과정과 양육경험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태균 역, 2005,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Padgett, D., 198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Sage Publication, 서울 : 나눔.
- 이경면, 2004, “사이버공동체와 장애아동 가족 간 지원”, 『부산장신논총』, 4: 313-347.
- 이숙정·이경아, 2007,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통한 장애아 부모들의 상호작용 유형 분석”,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1): 51-72.
- 이시연·박은미, 2004,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사례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291-316
- 이연희·황순영, 2013, “여가자조모임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연구』, 15(1): 293-314.
- 이원령, 2010, “초등학교 자폐성 장애아동 부모의 부모교육 요구 내용에 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6(1): 227-246.
- 이재신, 2007,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스포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4): 79-111.
- 이지현, 2007, “발달장애아동어머니가 인식한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조집단 및 전문가의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선·리대용, 2004, “구전으로서 온라인 사용후기의 효과에 관한 연구”, 『홍보학연구』, 8(2): 234-268.
- 임원근·오은경, 2014,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예측 요인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1: 173-200.
- 정일권·김영석, 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론동향 지각과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연구』, 50(4): 302-505.
- 정현주·김성수, 2013,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의사소통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재활복지』, 17(2): 69-95.
- 전혜인·박지연, 2004,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의 가족지원에 관한 문헌 고찰: 1995년~2004년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0(4): 117-137.
- 조국현, 2007, “인터넷‘댓글’의 텍스트 유형학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23: 203-220.
- 조수선, 2007, “온라인 신문 댓글의 내용분석: 댓글의 유형과 댓글 게시자의 성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5(2): 65-84.
-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12,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ng, 서울: 학지사.
- 조흥식·강상경·김용득·김진우·박희찬·윤민식·이준영, 20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서울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지선·이익섭·김재형, 2010,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2: 36-60.
- 최재화, 2014,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인지-행동치료가 정서·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 및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경, 2010, “성인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보호부담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2): 243-263.

- 한주경·박재국·김영미, 2011, “장애유아와 일반유아 부모의 양육특성에 관한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54(2): 235-257.
- Clifford, T., 2011, “Support group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Predictors and effects of involvement”, Doctoral Dissertation, <http://hdl.handle.net/1974/6561>.
- Clifford, T., and Minnes, T. 2013, “Logging on: Evaluating an online support group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3(7): 1662-1675.
- Estes, A., Olson, E., Sullivan, K., Greenson, J., Winter, J., Dawson, G., and Munson, J., 2013, “Parenting-related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mothers of toddler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Brai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Edition-*, 35(2): 133-138.
- Giallo, R., Wood, C. E., and Jellett, R., and Porter, R., 2013, “Fatigue, wellbeing and parental self-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n Autism Spectrum Disorder”, *Autism*, 17(4): 1362-3613.
- Glaser, B., 1998, *Doing Grounded Theory: Issues and Discussion*.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Hoshmand, L. L. S. T., 1989, Alternative research paradigm: A review and teaching proposa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7(1), 3-79.
- Kendall, J., Leo, M. C., Perrin, N., and Hatton, D., 2005, “Modeling ADHD child and family relationship”,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4(4): 500-518.
-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cMillan, S. J., and Hwang, J. S., 2002, “Measures of perceived interactivity: An exploration of the role of direction of communication, user control, and time in shaping perceptions of interactivity”, *Journal of advertising*, 31(3): 29-42.
- Steuer, J., S., 1993, Defining virtual reality: Dimensions determining telepresence, *PsycSCAN: Applied Experimental & Engineering Psychology*, 7: 1-16.
- Strauss, A. L.,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SAGE Publications.
- Shang, R., Chen, Y., and Liao, H., 2006, “The value of participation in virtual consumer communities on brand loyalty”, *Internet Research*, 16(4): 398-418.
- Rafaelli, S., 1998, “Interactivity: From media to communication”, 110-134, in *Advancing Communication Science*, edited by Hawkins, R., Wiemann, J., Pingree, S., Newbury Park, Calif. : Sage Publications.

A Study on the Pattern of Growth Process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Online Parental Community

Lee, Kyungah

(Dankook University)

Kim, Sungchun

(Chung-Ang University)

Chang, Haelim

(Seoul Jangsin University)

Lee, Eunjoung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growth of parental empowerment of the famil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in an online parental community. For this purpose, 250 posts were selected from a web-forum of an online-community(internet CAFE) for pati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 Korean portal site. In addition, the selected pos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ents with high risk children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teracted with each other in short answers, self-addressing, and discussion type interactions under the causal condition in which the subject parents were in need of help and sympathy.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focus event, which is the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osters of the original threads and replies, included the moderating conditions based on whether the conversation was respectful, friendly, or for general evaluation, as well as the contextual condition of exclusive attitudes. The strategies of the interactions were composed of two categories of self-reflections and sharing through a human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se interactions were either further interactions (sharing) or shying away.

With regard to the process of reinforcing the collective empowerment of the family, the 'determination,' 'tips,' and 'empathy' models were used for the

explanation of the process. Lastly, we discovered that trust, support, continuous interactions, specific and practical information, as well as provision of diversified perspectives through collective experiences are necessary to achieve such improvement of collective family empowerment.

Key words: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online-communities, interactions, pattern of growth.

[논문 접수일 : 14. 08. 20, 심사일 : 14. 09. 01, 게재 확정일 : 14. 10. 03]